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11월 1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전국 5만의 노동자들 한 자리에

11월 12일, 일요일인데도 5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뽕뽕 얼어붙어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절절하게 풀어냈다. 특히, 전날인 11일과 당일 아침에 고공농성에 오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와 건설노조의 소식은 가뜰이나 추워진 날씨를 더 춥게 만들었다.

핵심은 노조할 권리 보장!

박근혜 정권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노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교조,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건설노조, 노조파괴 공작으로 신음하는 금속노조 등 수많은 노조들이 요구한 것의 핵심은 결국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찾는 것

뿐이다.

지부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날 집회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하고 피켓 행진을 통해서 우리 요구를 전국의 동지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나갔다.

노동법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결국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다.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국회에 맞춰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2018년 상반기까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투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부는 지금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왔듯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현대성우메탈 문제 방관하는 충주노동지청 규탄한다!

현대성우메탈지회가 설립된지 벌써 7개월 가까이 흘렀다. 그 동안 현장에서는 교묘한 차별과 탄압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지회가 설립되지 마자 표적징계가 이뤄졌고, 지회장이 무급전임 활동 이후 현장 복귀를 하려하자 이를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0월 25일, 지부, 지회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신임 충주지청장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현대성우메탈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에 대해 노동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부는 당사자 조사 조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에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

지부는 충주노동지청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탄압을 방관하는 노동청은 필요없다.

* 이번주 일정 *

■ 대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11/14(화) 11:30 ~ 13:00

한밭공동화사업단지 '공단식당'

■ 충북,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선전전

11/16(목) 06:30, 청주 성모병원 인근

11/16(목) 07:00, 음성 Y&T파워텍 앞